

공공기관, 2.3만명 신규 채용

전년 채용계획 대비 2% 증가
한국철도공사 1855명으로 최다
한진>충남대병원>진보공단 順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23,307명' 채용인원 가장 많은 곳은 '한국철도공사'

순번	기관명	정규직채용	일반채용	고졸채용
1	한국철도공사	1855	1855	0
2	한국전력공사	1547	1347	200
3	충남대학교병원	1428	1428	0
4	국민건강보험공단	844	754	90
5	부산대학교병원	789	789	0
6	전남대학교병원	652	652	0
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12	612	0
8	분당서울대학교병원	543	543	0
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62	462	0
10	근로복지공단	450	450	0

자료/인크루트

공공기관 361곳의 올해 신규채용 규모가 전년보다 2% 증가한 2만3307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철도공사 정규직 신규 채용인원이 1855명으로 가장 많았다.

16일 인크루트가 기획재정부의 '한눈에 보는 2019 공공기관 채용계획'에 소개된 361개 기관의 채용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공기업 35곳에서 6660명, 준정부기관 96곳에서 6990명, 기타공공기관 230곳에서 9657명을 올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지난해 이들 기관의 채용계획(2만 2876명)에서 2% 늘어난 규모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기준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 합계는 총 2만2734명으로, 4/4분기 신규채용 최종 결과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올해 가장 많은 인원의 채용을 예고한 기관은 ▲한국철도공사로, 올해 1855명의 정규직 채용계획을 수립했다. 2018년 1600명, 2017년 1091명에 이어 해마다 채용 폭이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는 전년 대비 16%가량 증가할 수 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1586명에서 올해 1547명으로 전체 2위에 랭크됐다. 2017년 1271명에서 지난해 24.8% 늘어난 채용계획을 발표했고, 올해 계획치는 전년 대비 소폭 줄었다.

채용규모가 3번째로 많은 ▲충남대병원은 올해 총 1428명을 채용할 예정이

다. 이는 2017년 247명, 2018년 544명에서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이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844명) ▲부산대학교병원(789명) ▲전남대학교병원(652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612명) ▲분당서울대학교병원(543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462명) ▲근로복지공단(450명) 순으로 2018년 정규직 예정 채용 순위 톱10 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신규채용 규모 상위 기관 중 고졸 채용을 하는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200명), 국민건강보험공단(90명) 두 곳이다.

한편, 올해 채용 계획을 발표한 기관들을 36개 주무부처별로 분석한 결과, ▲교육부 산하 기관이 총 5626명(전체의 24.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들이 4093명(17.5%) ▲국토교통부 3999명(17.1%) ▲보건복지부 2784명(1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55명(5.3%) 등 순으로 집계됐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25억년전 무산소 지구 미생물 생태 규명

심민섭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하는 개별 효소들의 역할에 주목해 첫번째 환원효소의 반응속도가 가벼운 동위원소의 경우 무거운 동위원소와 비교해 2% 빠른 것을 확인했

서울대는 지구환경과학부 심민섭(사진) 교수가 주관하고 동경공립대학 손맥글린 교수 등이 참여한 국제공동연구팀이 황산염을 이용한 무산소 호흡의 필수 효소가 남기는 화학적인 기록을 최초로 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광합성이나 화학합성 생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호흡을 통해 확보한다. 인류를 비롯한 동물은 호흡을 통해 유기물을 산화시키고 산소 환원시키는 반면, 미생물은 산소 대신 황산염이나, 질산염, 산화철 등의 물질을 환원시키는 무산소 호흡도 가능하다.

미생물 활동이 남기는 화학적인 화석 중 하나는 같은 성질을 지니지만 질량에 미세한 차이가 있는 동위원소 사이의 비율 변화이며, 황산염환원을 통한 무산소 호흡 또한 황 동위원소 조성을 변화시킨다.

지구 형성 이후 무산소 환경이 지속되었던 20억년 동안 미생물은 생명과 지구의 진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삼엽충이나 공룡과 같이 물리적인 화석기록을 남기기 어려워 이들의 활동은 주로 화학적인 기록을 통해 연구된다.

심 교수 연구팀은 황산염환원에 참여

고, 이를 기준으로미생물의 활동이 동위원소 비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제안했다.

현재 생물에 의해 일어나는 황 동위원소 조성 변화는 대부분 이번 연구결과보다 큰 경향을 보이지만, 25억년 보다 오래된 퇴적암의 황 동위원소 조성은 이보다 작은 값을 지시한다. 이는 당시 해양 환경에서 황산염환원 미생물이 유기물을 호흡에 현재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 대기 중 산소 농도가 현재의 0.001% 미만에 불과했던 25억년 이전의 지구에서는 산소를 이용해 호흡하는 생명체들의 활동이 어려웠고, 그 결과 황산염환원 미생물들이 현재보다는 유리한 생태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결과는 네이처의 자매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 온라인판 1월 10일자로 게재됐다. /한용수 기자

학생의견 반영한 '편안한 교복' 만든다

서울시교육청, 추진단 권고 반영

내년 서울시 소재 중·고교 교복 형태가 학교별로 학생 의견 50% 이상이 반영돼 정해진다. 교복의 디자인과 소재, 패턴 등을 정할 때 학생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교복을 아예 폐지할지도 논의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11월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추진단·단장 김중욱)'으로부터 제출받은 권고안을 수용해 2019학년도 1학기 중 서울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편안한 교복'에 대한 학교별 공론화가 추진된다고 16일 밝혔다.

추진단 권고에 따라 각 학교는 상반기 중 교복의 형태와 디자인 등에 대해 학생 의견 50% 이상을 반영해 2020학년도 교복으로 선정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각 학교 공론화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돕기 위해 '공론화 매뉴얼', '편안한 교복 디자인 가이드북', '교복 학교주관구매 길라잡이'를 제공하고 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지원도 하기로 했다.

각 학교는 교복 관련 학적 제·개정위원회 구성해 의견수렴을 거쳐 그 내용을 발의하고, 토론회와 설문조사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시안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추진단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 토론회 참석자 231명을 대상으로 교복 형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지정 생활복'(45.8%)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기존 교복 개선'(22.2%), '교복 자율화'(17.3%), '상의 지정 교복·하의 자율'(10.2%)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각 학교별 공론화 과정에서도 학생들이 선호하는 '지정 생활복'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지정 생활복은 점퍼나, 후드 집업, 반바지 등 다양한 형

태나 디자인의 케주얼 복장으로 상당수 서울 중·고교의 일률적인 형태나 소재의 교복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계절별 교복 착용시기가 학생 자율적으로 정해지고, 동절기 교복 외 방한용 덧옷이나 조끼 등의 착용여부나 색상 형태 등에 대해서도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편안한 교복 도입에 앞서 올해 상반기에는 두발에 대한 공론화에 따라 염색이나 파마 등 두발 관련 학교규칙이 도입될 전망이다. 편안한 교복은 하반기 학교 주관구매 절차를 통해 2020학년도에 도입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불편한 교복을 편안한 교복으로 개선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개성 신장을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적 과제다"며 "두발, 복장 등 학생의 용모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학교 구성원의 충분한 숙의과정과 전체 의견수렴을 통해 제·개정해 중·고등학교에 편안한 교복을 도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용수 기자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으로 투명한 운영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부터 도입
내년 전면시행 대비 지원방안도 마련

폐원을 신청했거나 추진하는 사립유치원이 매주 증가하는 가운데,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이 3월부터 대형 유치원에 도입된다. 사립유치원 단체 위주로 에듀파인 도입에 부정적이어서 실제 얼마나 많은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이용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 중 현원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개원과 희망 유치원을 대상으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작년 10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해 에듀파인 도입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

에듀파인은 학교에서 예산편성, 수입 및 지출관리, 결산 등에 대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 업무효율성과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사립유치원을 제외한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에서 사용된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들이 에듀파인을 적극 도입하도록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자료/한국교육학술정보원

참여하는 현장자문단을 구성해 시스템을 개선 중이며, 사립유치원 사용자 매뉴얼도 이달 말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업무 절차의 추진 시기를 고려해, 에듀파인의 예산편성 기능은 2월 중순부터 개통하고, 수입관리·지출기능은 유치원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3월 1일, 결산기능은 4월에 단계적으로 개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을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필수 기능 위주로 간소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2020년 3월엔 전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안착을 위한 지원체제도 마련된다. 에듀파인 전문 인력 90명 내외를 대표강사로 지정해 이달 말부터 5개 권역으로 찾아가는 대표강사

연수를 실시하고, 2월부터 사립유치원 관계자 대상 연수를 진행한다. 또 교육지원청 단위 에듀파인 컨설팅단을 2월부터 운영해 상시 업무지원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에듀파인 운영·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2월 중순부터 전문 상담사 10명을 배치해 '0079 콜센터'를 운영, 에듀파인 시스템 오류 처리나 응용소프트웨어 장애 모니터링 등의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과 소통해 에듀파인을 지속 점검·개선하고 내년 전면 시행에 따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